

# 금성강단

발행인 : 이성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금성교회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로10길 5-3

전화 : 2661-1045, 1004, 1009

팩스 : 2662-0206

홈페이지 : [www.kumsung.org](http://www.kumsung.org)

## 교회표어

성령의 충만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된다.

(행9:31)

부제 : 다시 거룩한 교회로, 다시 칭송 받는 교회로

(행2:47)

## 목회방향

1.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의 가족 공동체.
2. 전도와 양육으로 다음세대를 세우는 공동체.

[2019년 2월 17일 금성교회 주일에배설교]

본문 : 욥 1:1-3, 3:1-10

제목 : 돌아가는 신앙 내리시는 은총(2)

“요나, 니느웨로 유턴 당하다.”

말씀 :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옹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삯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욥1:3)

※ 매주 발간되는 금성강단은 주일 낮 예배 설교입니다. 이 소식을 통해 주님을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이나 다른 분에게 보내고 싶으신 분은 금성교회에 연락해 주시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요나, 니느웨로 유턴당하다.”입니다. 원래 생각했던 제목은 “요나, 사명의 자리로 강제 유턴 당하다.”입니다. 너무 제목의 표현이 강한 것 같아서 “요나, 니느웨로 유턴당하다.” 라고 했습니다. 이 제목은 요나서 전체의 주제를 말해줍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났던 요나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서 그 자리에서 강제적으로 사명의 자리로 유턴시킨 하나님의 섭리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발적으로 유턴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유턴을 시키면 당하는 사람은 정말 고통입니다. 환란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 가족 부모 자녀들까지 같은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요나로 인해서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에 있던 자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혹시 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속에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유턴을 시키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요나의 삶은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1-2을 같이 읽겠습니다. “1. 여호와와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명령은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입니다. 이 구절에서 무엇을 외치라고 했는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3: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외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는 누구일까요? 요나의 이름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우선 <비둘기(dove)>라는 뜻입니다. 비둘기는 온유와 화평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무감각하다, 분별이 없다>(senseless)입니다. 아마 요나서를 두고만 생각해보면 두 번째의 의미가 요나의 성품에 맞는 것 같습니다. 요나는 무분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의 마음은 방향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일어나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하게 됩니다.

반면에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밋대(Amittai)>입니다. <나의 진리, 나의 성실(my truth, my faithfulness)>이란 의미입니다. 성경은 "아밋대"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 요나의 부친이요 가드헤벨 사람이다."라고만 말합니다. (왕하 14:25, 욥1:1). 요나의 아버지에게 대해서는 더 이상의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유명해지니 요나의 아버지라고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요나서를 묵상하다보면 무분별하고 무감각한 제 멋대로 고집이 센 요나에게 하나님은 참 아버지 <아밋대>가 되심을 엿 볼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한 요나에게 대하여 끝까지 진리 안에서 성실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나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성실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아밋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살았지만 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아밋대>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늘 소망이 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렵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언제나 오늘이 한결 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 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요나는 북이스라엘 가드헤벨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11세의 통치 기간 중 B.C.793-753년까지 사역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나가 처음으로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이방국가인 앗수르와 수도 니느웨에 파송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선민사상이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국가는 하나님이 멸시하는 백성이요 저주 받은 백성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이방도시에 최초로 명령받은 선지자입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옹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샅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요나의 반응은 불순종입니다. 이 구절에서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란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말은 보기가 싫다는 말입니다. 만나고 싶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멀리 멀리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도망하고자 마음을 먹고 옹바로 내려갑니다. 옹바는 항구도시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옹바로 가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샅을 주고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시139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7.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8.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9.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요나의 신앙이 다윗보다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불순종하고 있는 지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영상 지도 두 개) 하나님은 요나에게 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옹바에서 니느웨까지 550마일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당시 세계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다시스로 갑니다. 거리가 2500마일입니다. 5배정도 먼 길입니다.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정반대 방향 서쪽으로 갑니다. 불순종해도 철저한 불순종입니다. 사명의 자리를 피해도 아주 철저히 피합니다. 고집이 이만 저만 센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고집은 자신의 삶과 주변의 삶을 괴롭게 만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교제를 나누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내리자 요나는 안가겠습니다. 못 갑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민족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인 줄 아십니까? 그런 자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랴니요? 그리고 저는 요, 당신이 인애하시고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라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할 것을 압니다. 하나님! 저는 니느웨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이 (북왕국 이스라엘)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곧 심판을 당하는 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 오히려 그들을 깨우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선지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가라고 하니 지금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상대하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니스웨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었기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까지 하면서 싫어했을까요?

한 10여일 전 교역자 세미나에 가서 읽을 책을 살피던 중 아주 최근에 나온 책(2019년 1월 23일 출판)을 한 권 구입했습니다. 저는 그 책이 나와 있는 지도 몰랐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설교자와 목회자로서 불리 우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한 팀 켈러 목사의 책, 방탕한 선지자 (The Prodigal Prophet)입니다. 요나서를 주해한 설교집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도 받았습니다. 요나서를 해석하는 시대적 통찰력의 뛰어남에 도전받기도 했습니다.

그 책 2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역사학자 부르크너(Bruckner)가 앗수르 제국의 공포조성에 대하여 3페이지를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팀 켈러가 인용을 한 내용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의 기록입니다.

“앗수르는 고대에서도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인 제국이었습니다. 앗수르인들은 적을 사로잡은 후에 두 다리와 한 팔을 잘라냈다. 한 쪽 손을 남겨둔 이유는 죽어가는 희생자의 손을 조롱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희생자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머리를 장대에 매달고 행진하게 했다. 포로들의 혀를 잡아 뺀고, 밧줄로 그들의 몸을 잡아 당겨 산채로 가족을 벗기고 그 가족을 성벽에 전시했다. 그들은 살아 있는 청소년들을 불태웠다. 도성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노예가 되고 잔인한 폭력적인 대우를 견디어야 만했다. 앗수르 민족을 부르는 명칭은 테러국가였다.”

이런 앗수르 제국은 예후 왕 통치기간에 이스라엘에게 막대한 조공을 부과하기 시작했고 요나의 생애 내내 유대인들의 왕국을 계속해서 위협을 했습니다. 그 나라의 수도인 니스웨에 가서 그들이 곧 멸망을 당할 것이니 회개하여 살길을 찾으라는 명령은 요나에게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마치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인 히틀러에게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가

스실에서 죽인 자에게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과도 비교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일제 치하에서 어머니와 누나를 잡아 옥에 가두고 고문하면서 성폭행한 일본 순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요나는 불순종하게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그 민족에 대한 증오심입니다. 앗수르는 이방 국가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방 나라가 구원의 소식을 듣는다는 것은 선민사상으로 볼 때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선지자들이 간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앗수르는 선택받은 민족을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앗수르 사람들에게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요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을 하셔서 멸망시키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요나의 이런 마음이 얼마나 강했는지는 요나의 외침을 듣고 회개한 니스웨 사람들을 보면서 요나가 기분 나빠하면서 성을 내면서 하나님께 반항하듯 한 말을 보면 알게 됩니다. 2:2절입니다. “2.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면서 그런 꼴을 눈 뜨고 못 보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나를 죽여 달라고 말을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쩔 수 없이 전하면서도 그의 속마음에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멸망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책망이 올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마음엔 그들에 대한 증오심을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분이 난 요나는 하나님께 따지듯 항거한 후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니스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멸망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 하나님은 박 냉쿨과 뜨거운 동풍과 벌레를 사용하셨습니다. 마을 밖에서 초막을 짓고 앉았는데 태양열이 너무 뜨겁습니다. 하나님은 박 냉쿨을 예비하사 햇빛을 가렸습니다. 박냉쿨로 인하여 만들어진 그늘로 인하여 요나는 괴로움을 면했습니다. 요나는 박 냉쿨을 기뻐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이번엔 벌레를 예비하셨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벌레들로 하여금 그 박 녀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박 녀쿨이 시들었습니다. 그늘이 사라졌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에 쏘이매 너무나 뜨거워서 요나는 혼미했습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네가 이 박 녀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참 요나의 고집이 보통 센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0-11절입니다. "10.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낚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 녀쿨을 아꼈거든 11. 하물며 이 큰 성을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대한 요나의 대답은 없습니다. 아마 말을 하지 못한 것을 보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의도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깨우친 것은 네가 선택받아서 아름답게 사는 것은 네가 앗수르인보다 더 잘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선택받은 은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가 곡의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입니다. 그런데 그 것을 모르고 내가 앗수르 사람보다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낫다고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해서 그들이 죽었으면 좋겠다. 멸망당했으면 좋겠다는 등 증오심 가득 찬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류를 사랑하는 그 명령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은 앗수르의 수도입니다. 당시에 인구가 60만은 족히 되는 큰 성입니다. 그런데 그 곳에는 좌우를 모르는 어린 생명들이 12만 명이나 있습니다. 어른들이 잘못을 저질렀지 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가축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들이 너무나 귀한 생명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사 복음을 듣게 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도구로 요나

를 사용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앗수르에 대해서 민족적인 증오심을 갖고 있는, 그래서 그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요나를 택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잘 나서 저들보다 깨끗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저들보다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저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하면 묵묵히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들은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 맞고 내 마음에 맞고 내 심성에 맞는 일만 맡겨준다면 순종을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정서와 나의 성격과 맞지 않는 일을 명령할 때 순종하는 일이 진정한 순종의 힘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불순종했습니다. 멀리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도망가는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게 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바다에 큰 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그 고기 배 안에서 요나를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회개한 요나를 큰 고기가 토해내게 만들었습니다. 니느웨가 멀지 않은 해변 가입니다. 강제적으로 니느웨로 유턴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령에 순종하면 다 사랑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지금 당장 순종하기가 어렵다손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과 고집과 뜻을 주장하지 마시고 묵묵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혹시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계획을 앞세우면서 불순종하고 있는 일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유턴을 시키기 전에 자발적으로 그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